

단감 국내 최초 유기농 농가 인증 획득



안전먹거리 지킴이...유기농 명인을 만나다

(9)담양 라라드림 대표 '라상채 명인'

결정유황 활용해 감꼭지벌레 등 해충 방제 마늘생즙 살포...수확한 전량 한살림에 판매

“유기농업은 자연 그대로 순환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산량에만 욕심내다 보면 나무의 본질을 잃기 쉽습니다.”

담양군 대덕면에서 '라라드림'을 운영하는 라상채(67)명인.

기존의 농장이름에서 전남도 유기농 명인 상표 '명인드림' 지원 사업을 통해 라라드림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라 명인은 이곳에서 1980년 농사를 시작, 20여년간의 일반농사를 끝으로 2004년 유기농 농업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라라드림은 산 아래 나지막하게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주변 산들이 그림자 같아 둘러싸여 있어 완벽한 풍경을 자랑한다.

명인은 이곳을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처음 농사를 시작할 당시는 민둥



산에 경사도 가파르고 쓸모없는 돌들이 널려 있는 거친 산이었지만 명인의 노력과 관리 덕분에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게 됐다.

처음 농사를 시작할 당시는 민둥호두를 같이 재배했지만, 현재는 주변 1



담양군 대덕면에서 자리잡은 라라드림의 전경(왼쪽)과 유기농 단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라상채 명인. /안태호 기자

만6천528.92㎡(5천평)에서 단감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있다.

라 명인은 반평생이 넘는 세월 동안 농사를 짓고 있지만, 아직도 즐기며 일하고 있다.

그는 과학도의 방식으로 이론적 공부를 완벽히 끝낸 뒤 현장에서의 실험을 통해 재배방법이 통했을 때 큰 희열이었다고 설명했다.

명인의 단감은 보통 9월 수확을 시작

해 11월 중순이면 마무리된다.

나머지의 시간은 애초 작업과 주변 토양을 가꾸는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

토착미생물 발효 퇴비와 함께 자체적으로 제조한 석회유황합제와 마늘 생즙을 4월 초부터 수시로 살포해 흰가루병을 예방하고, 감꼭지나방 등 병해충도 방제한다.

특히 그는 좋은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질소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

조했다.

병충해 창궐에는 항상 비료 문제가 원인이고 질소가 많은 나무에 충해도 잘 붙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명인은 집에서 제조한 일반 유황이나 아니면 시중에 있는 결정 유황을 활용해서 서늘한 오후 시간 때 시비 하면서 감꼭지벌레 등의 충해를 막아낸다.

이 같은 노력과 철저하게 친환경 농법을 지속 유지해 온 결과 지난 2007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감으로 국내 최초로 유기농 인증을 받았으며 2011년도엔 '전남도 유기농 명인' 제1호로 지정됐다.

단감은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로 100g에 들어있는 양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14%에 해당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품질 좋게 생산되는 농작물 전량은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에 판매하고 있다.

이런 명인의 앞으로 계획은 자녀들에게 기술 전수와 많은 농업인이 유기농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상채 명인은 “자녀들이 농업을 물려받는다고 해 현재 들어와 있어 거의 대부분을 자식들이 관리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다”며 “역지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배우려고 할 때 능률이 오르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물어볼 때 많은 경험을 이야기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 몇 농가도 유기농을 실천했는데 어렵다고 그만왔다”며 “최고의 농사꾼은 땅을 가꿀 줄 아는 농사꾼이라고 생각한다. 단기간에 수확보다는 많은 농가가 제대로 된 토양을 만들어 우리 농업이 자연 순리대로 됐으면 하는 것이 마지막 바람이다”고 인정한 웃음을 내비쳤다.

안태호 기자

전남도, 어묵산업 활성화 박차

전북·승어 신메뉴 개발...목포엔 가공공장 건립

전남도는 25일 “최근 성장 추세인 어묵 시장 개척을 위해 전북과 승어를 활용한 어묵 신메뉴 개발과 목포어묵 가공공장 설립 등 어묵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어묵 시장은 2023년 6천227억원 규모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약 73%가 부산과 경기도에 밀집한 반면, 전남은 2개 기업 약 0.3%에 불과해 지속적인 사업 확장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전북·승어 등 수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 구축 등을 위해 목포 대양산단에 총 100억원을 들여 어묵 가공공장을 건립하

고 있다. 어묵 가공공장은 지난 7월 착공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입주 기업을 모집·운영할 예정이다. 3개 입주기업에서 1일 최대 6t 가량 생산이 가능하고 어묵 가공 공정과 어묵 제조 체험 등 관광까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 어묵의 경우 지난 4월 전남도청 구내식당에서 시식회를 열어 긍정적 효과를 얻은 이후 관련 기업에서 광주·전남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타 지역 학교에도 급식 공급을 위해 협의 중이다.

승어 어묵은 진도 해역의 승어와 전복, 톳, 대파 등을 활용해 진도 신기어촌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협력, 고급 프리미엄 제품으로 개발해 지난



추석 명절부터 세트 상품을 출시했다. 강석은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전남산 정적 수산물로 어묵을 생산하는 만큼 수입산 원육으로 생산되는 타 어묵과 차별화한다는 전략”이라며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도농기원, 내년 농촌진흥사업 국비 259억 확보

농촌지도 활성화 등 확대반영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농촌진흥사업 관련 정부 예산을 올해(259억원)보다 3억원 증가한 26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예산은 ▲지역 농촌지도 활

성화 지원 125억원 ▲신기술 보급 52억원 ▲농작물 병해충방제 30억원 ▲과학농현장기술지원 12억원 등이다.

이번 국비 증액 반영은 지역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농촌지도기반시설) 사업 및 농작물 병해충 예방 방제 관련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결과다. 전남도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

센터가 협력해 국비 사업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비 증액 반영을 뒷받침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농촌진흥사업 추진으로 농가 소득 증대 등 전남 농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시원 기자

“고수온으로 김 양식 채묘 적기 늦어져”

잇바디돌김 이달 말·일반김 10월 초 이후 예측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5일 “올해 평년보다 높은 수온 영향으로 김 채묘 적기가 평년보다 늦춰져 잇바디돌김은 이달 말 이후, 일반김과 모무늬김

은 10월 초 이후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올해 전남 해역은 평년보다 2~4℃ 높은 수온을 보이면서 22℃ 이하(잇바디돌김),

22℃ 이하(모무늬돌김·방사무늬김)로 낮아지는 수온 하강 시기가 다소 늦어진 전망이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안정적 채묘와 양식 초기 고수는 피해 예방을 위해 패각사상제 성숙도, 질병 관리 등을 위한 김 채묘 상담실을 지역별로 운영하고 수온, 영양염 분석 정보 등을 실시간 안내할 예정이다. /양시원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차만손

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소통해요

QR 코드 스캔하여 차만손 영상 보기

차만손이 왜 필요할까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22년도 전체 보행자 사망자(933명) 중 횡단중 교통사고 사망자 54.6%(509명) 차지

도로 횡단 의사 표현

22. 7. 12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하려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

운전자와 소통하는 문화

차량 양보율(광주·전남) 9%
→ 차만손 수신호 실천 시 86%

차만손 어떻게 실천해요?

보행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핀다.
- 2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손을 90도로 뻐낸다.
- 3 운전자와アイコン택하며 손바닥을 보인다.
- 4 차량이 멈추면 도로를 건넌다.

운전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한다.
- 2 차만손 등 보행자가 통행의사를 표시하면 일시정지한다.
- 3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지나간다.